



• 2020. 12. 6. 설교
• 설교 | 이 규 현 담임목사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마가복음 5장 21-34절 **본문**

21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회당장 중의 하나인 아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23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26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29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33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34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치유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마가 특유의 이야기 기법으로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회당장 아이로의 딸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중간에서 끊기고 35절 이후 다시 이어집니다. 중간에 25절부터 34절까지는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작된 회당장 아이로의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회당장 아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본문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의 딸이 매우 위중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긴급한 상황에 즉시 그가 원하는 대로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너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혈루증은 유출병을 말합니다. 비정상적인 피를 계속 유출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나병과 같이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됩니다.

이 병은 병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무엇보다 가족과 공동체와 격리됩니다. 당연히 종교적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중 심중으로 고통을 겪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유명한 종합병원, 명의를 다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치료는커녕 더 악화되었고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허비해서 몸이라도 나았으면 될 텐데 몸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의사들의 실력이나 의학적 수준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그녀가 얼마나 절망적 상태에 놓여있는가를 강조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모습입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이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본문 27-28절에 “27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자 달려왔지만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미 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는커녕 접근조차도 어려웠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면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매우 연약한 몸이었을 것입니다. 군중들 속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사투를 벌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인파를 뚫고 또 뚫고 들어갑니다. 마침내 다가갔지만 그녀는 부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안수기도라도 받고 싶지만 그럴 형편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져도 나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마침내 그 옷자락에 손을 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개 치유 사건은 주님이 대면하시고 직접 치유하시는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주님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여인이 일방적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댐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옷에 손을 댐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옷에 무슨 영험이 있어 일어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옷을 만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인이 드러낸 믿음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나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뒤에서 은밀하게 살짝 옷을 만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주님이 별 볼 일 없다고 취급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분명한 교리이해, 잘 갖춰진 신앙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기 믿음의 단계를 돌아보면 비슷합니다. 실수도 잦았고 미숙하며 영성했습니다. 성경도 잘 몰랐고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때 즐기기도 하고 찬송가도 잘 모르는데 웬지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작은 헌금이지만 자신의 믿음을 이미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늘 그런 수준으로 있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 신앙의 기초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옷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녀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비해서 주님의 자비는 너무도 큼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주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밀고 밀리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에 접촉이 일어났다고 모든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간절함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영적인 감지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냥 당신의 옷에 닿은 자와 믿음으로 나온 자를 구별해낼 줄 아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지만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주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것 같고 기도할 줄도 몰랐지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수준 있는 모습, 근사한 모습을 갖추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혈루병이 나은 기적은 주님과 여인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의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본문 31절로 이렇게 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황당스러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주님, 잔잔한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가던 길 가십시오”라는 투입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괜한 일에 신경을 쓰신다고 생각했습니

다. 사실 이 여인과의 접촉은 의식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가능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결한 사람과 접촉했다면 예수님도 불결해지는 것이고, 여인도 법을 어긴 것이 되어버립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인파 속 병든 한 여인의 존재는 너무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어이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 앓아 지친 몸골을 하고 있는 그녀로서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여인을 찾아야 할 이유는 이 본문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당장 아이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혈루증 여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의외의 사건이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바쁘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바쁜 걸음을 하고 있는데 성도와 마주쳤을 때 긴급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에 치이다 보면 끼어드는 일을 귀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도 사람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역에 쉼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냥 가야 합니다. 아이로의 집에 먼저 선약이 있다고 하면 됩니다. 본문의 사건을 표면적으로 보면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었고, 아이로의 딸의 치유를 지체시킨 일입니다. 또한 시간의 지체로 인해 후유증이 생긴다면 나중에 크게 원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러서지 않고 이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다음 사건을 잊은 것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의 사건, 한 영혼의 문제라도 가볍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목회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적에만 눈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보다 더 중요**

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능력을 일으키는 능력자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전인적 구원을 베푸십니다. 병 낫는 것만으로 완전한 기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옷에 손만 댄 여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을 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여인의 병이 나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을 직접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일대일 대면을 원하셨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비대면으로 안 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과 마음이 마주치려면 대면이 있어야 합니다. 깊은 것을 듣고, 보고, 느끼는 가운데 일어나는 터치는 비대면, 영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의 인격에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닌 그녀의 깊은 곳까지 만져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치유만으로 끝내고 만족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적만 체험하고 떠나버리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유명한 정신 의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질병은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은 치료받았는데 삶은 더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은 나았는데 삶은 더 피곤하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섭습니다.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만져주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몸만 나았다고 나은 것입니까? 밥만 먹고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군중 속에 있는 여인을 찾아내고 그 여인을 향하여 따뜻한 음성으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녀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상태

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녀가 가진 조그만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가진 믿음은 놀라운 것이야!” “그 믿음이 너의 운명을 바꾼 거야!”라며 아낌없이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반응해주십니다.

무엇보다 병이 나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따뜻한 가슴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따뜻한 품에 한 번 안기면 그동안 받아왔던 사람들의 냉대로 인해 얼어붙은 가슴이 눈 녹듯 녹고도 남습니다. 육체적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은 약으로도 안 됩니다. 멍든 가슴은 사랑의 가슴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딸아”라는 말은 정다운 부르임입니다. 혈루증 여인에게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따뜻한 음성일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녀에게 아빠처럼 다가가셨습니다. 그 음성은 여인을 치유하기에 충분한 음성이었습니다. 몸은 언젠가 병이 나고 죽습니다. 진짜 치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녀를 향해 “딸아, 평안히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겪은 12년간의 고통을 한꺼번에 말갈게 씻어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일시적 회복이 아닌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요즘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진찰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아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는데 왠지 마음을 파고드는 아픔으로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공허가 밀려오고 허무와 우울감으로 뒤척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여인이 겪었던 접촉금지의 질병처럼 코로나바이러스로 접촉 주의 명령이 사회적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마음껏 터치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외로웠지만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모두가 바쁩니다. 총총걸음으로 어디론가 바쁘게 살

면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병든 가슴으로 앓다가 몸져눅습니다. 오늘 주님은 매우 바쁜 걸음으로 회당장 아이로의 집으로 가시다 한 여인을 위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매우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또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주변은 속이 탔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한 여인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마가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바쁜 일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른 체했어도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을 텐데 기어이 그 여인을 찾아내서 다가가 끌어 안아주시고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연말 위대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가던 걸음을 잠깐 멈추고,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외된 한 영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조금만 다가가 사랑을 베푼다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으로 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누군가의 따스한 관심으로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좋지만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위압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군중 속에 한 사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고통이 우리 안테나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교역자들이 많지만 그만큼 사역도 많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군중 속에서 울고 있는 한 영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기차를 타고 서울을 다녀오는 길에 부산역에서 우리 교인이 인사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암을 앓은 지 7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길을 오가며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요? 몇 마디 나누는데도 그 아픔이 저에게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고, 바쁜 걸음이라 잠시 이야기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성도인 데 좀 더 사연을 듣고 함께 기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옷에 손만 대고도 만족하고 떠났을 여인에게 다가간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결론을 내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전개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혈루증 여인이 주님에게로 다가간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도 그 여인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녀는 12년 동안 고통과 절망 속에 피를 흘려야 했던 중환자였습니다. 군중을 홀로 뚫고 들어오기에는 매우 연약해져 있는 그녀를 주님은 아시고 무리 속에서 의도적으로 여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셨을지

도 모르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여인이 당신을 찾아 힘겹게 다가오는 한 영혼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녀가 다가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한 병든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여인이 끼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에게는 이 사건이 핵심이었습니다. 주님은 다가오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꺼이 다가가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군중 속에 혼자서 소리를 치고 있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걸음을 종종 멈추

십니다. 당신을 향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기만 하면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아온다면 주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조금이라도 주님께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던 선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단순히 내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소외되고 고통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사랑원들을 환영

여는말
ICE BREAKING

지난 한 주 또는 오늘 묵상(QT)한 말씀 중 마음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금주의 암송구절 (49주차)

소망의 이유 (고후 4: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감사함으로 찬양** | 84 주님 말씀하시면 197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311 예수 우리 왕이여

• **찬송가** | 79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97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314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말씀나눔

나눔1.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누구이며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25, 27~28절)

나눔2. 열두 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은 어떻게 자신의 병을 고침 받았나요? (27, 29절)

나눔3. 주님이 가시는 길에 이 여인은 회당장 아이로와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나눔4. 아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긴급한 상황에도 가던 길을 멈춰서서 여인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눔5.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 사랑방원들을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

❶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 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뭍살히 여기서 복음으로 하루속히 평화통일 되게 하옵소서.

❷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불길이 각 가정과 교회에서 뜨겁게 일어나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❸ 수영로교회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빛과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에게 엘리사의 영감을 칠 배를 더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와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치게 하소서. 건축 중인 경주 수양관이 주님의 임재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응답의 동산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 사역내용을 가지고 기도 후 마무리

*목자플러스 담임목사님 교육 영상을 수영로교회 앱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로교회 예배와 찬양] 앱→수영로소식→목자플러스 담임목사님 교육